

# 생존 기로 목포시의료원 자생력 키워 재도약 인간힘

### 100년 넘게 서남권 공공의료 거점... 지난해 50억 적자 운영난 심각 특화 진료 강화 병상 가동률 회복 박차...도립 전환 목소리도 높아

100년 넘게 전남 서남권 공공의료를 지켜온 목포시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가운데도 자생력 있는 건강한 공공의료 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원의 현실과 미래를 둘러싼 시각이 교차하면서 전라남도 도립 전환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목포시의료원은 1897년 목포항 개항과 함께 '공립병원'으로 문을 열어 한 세기 넘게 지역민의 건강을 지켜온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경영난이 급격히 심화했다. 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 19 이전 85% 수준에서 지난해 65%로 크게 떨어졌고 연간 입원 환자도 9만 2000여 명에서 7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외래 환자 수가 소폭 늘었음에도 경영수지는 빠르게 악화해 2019년 4억원 흑자를 기록했던 당기순이익이 2023년에는 19억원, 올해는 32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실질 적자 폭은 지난

해에만 50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료원 관계자는 "진료량 감소와 인건비·운영비 상승, 필수 의료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의료원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곳은 목포 등 단 4곳뿐으로 순천·강진처럼 전라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도립 체계와 달리 시설 개선과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역 의료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전라남도가 목포시의료원을 도립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 시민은 "목포시의료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진료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적



목포시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가운데도 자생력 있는 건강한 공공의료 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목포시의료원 전경.

자가 누적되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전라남도가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은 "정치인들이 말로만 도립 전환을 언급할 뿐 실제 행동은 없다"라며 아쉬워했다.

반면 목포시의료원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며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원은 올해 개원 128주년을 맞아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특화진료를 강화하며 병상 가동률 회복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중장기 치료, 정신건강, 비뇨기 질환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해 지역사회 중심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포시의료원 관계자는 "공공의료 본질을 지키면서도 자생력 있는 운영으로 건강한 병원을 만들고 있다"며 "서남권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재정 건전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장을 중심으로 한 책임운영체제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들 스스로 '건강한 병원 만들기'에 나서며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목포시의료원이 더 이상 목포시만의 책임으로 남아선 안 되며, 전남 서남권 전체의 공공의료를 지탱할 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목포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체계 강화 동시에 자생력을 키우려는 내부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가족 복지·공동체 돌봄 거점 '완도군 가족센터' 개관

### 다양한 맞춤형 공간 등 갖춰

가족 복지와 공동체 돌봄의 거점이 될 '완도군 가족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완도읍에 들어선 가족센터는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가족 복지 공간이다.

다목적 소풍 공간, 커뮤니티실, 공동 육아 나눔터와 다문화 자녀 이중 언어 교실과 한국어 교실, 요리 교실, 동아리방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공간으로 마련됐다.

육아, 상담, 다문화가정 지원은 물론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가족 복지 중심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한금융희망재단은 가족센터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성을 위해 8800만원 상당 내부 인테리어



지난 26일 신우철 군수를 비롯해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보건·복지·교육 관련 기관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군 가족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완도군 제공>

와 기자재, 교구재를 후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개관식 자리에서 "가족센터가 가족애를 더 키울 수 있는 공간이자 모든 세대

가 어우러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분양 청신호 켜졌다

### 무안에어로 계약금 11억여원 납부

무안군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항공특화산업단지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

무안군은 항공특화산업단지 리딩기업 무안에어로 테크닉스가 최근 분양 계약금 11억9000여 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무안에어로 테크닉스가 이번에 납부한 금액은 1개 필지 7만 2744.9㎡에 대한 분양 계약금이다.

무안에어로 테크닉스는 당초 2019년 무안군과 MOA(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분양대금 278억원 중 예치금 10억원을 미리 납부해 두개 필지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가졌다.

하지만 협약을 체결한지 1년이 지난 최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우선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다행히 1개 필지에 대한 잔금을 치른 것이다.

무안에어로 테크닉스는 향후 중도금 40%를 90일 이내에 납부하고, 잔금 50%는 일시불도 가능하지만 3년 6개월 후까지 납부해야 한다.

무안에어로 테크닉스는 현재 산단에 들어설 항공정비(MRO)·점검을 위한 격납고(행거)를 자체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는 망운면 피서리 일대 35만342㎡부지에 2020년 11월 착공해 4년에 걸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조감도.

쳐 총사업비 466억원을 투입, 2024년 6월 준공했다. 이곳에는 항공정비, 항공물류, 부품 등의 업종이 입주하게 된다.

무안군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산업시설 2필지를 지난해 12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 계약으로 잔여부지 분양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에어로 테크닉스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무안의 항공산업 발전 기반이 차근차근 마련돼 가고 있다"면서 "항공정비 기술이 무안에서 더욱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목포시, 28억 투입

### 노후 요트마리나 시설 정비 해상계류장 시설 전면 교체

목포시가 서남권을 대표하는 목포요트마리나의 시설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009년 조성된 목포요트마리나는 올해로 건립된 지 16년 차로, 시설이 노후화돼 전반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시설물인 해상계류장 구조물의 안전성 저하에 따른 이용객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면서 구조물 전면 교체 및 보강이 시급한 상태다.

요트마리나 시설 정비사업은 해상계류장 구조물 안전성 확보와 기능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사업비는 28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모두 편성함에 따라 7월에 즉시 정비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며,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시설 정비사업 완료 후에는 선석 계류비 현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 요트마리나 계류비는 2009년 최초 책정 이후 변동이 없어 현재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



목포시 요트마리나 전경.

며, 이는 장기 방치 선박이 많아지고 관광도시 이미지가 훼손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는 계류비를 인상함으로써 장기 방치 선박이 줄어드는 한편 위탁료 상향으로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노후된 요트마리나 해상계류장 시설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이용객 안전 확보와 만족도 향상은 물론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HD현대삼호 조선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

### 독일 노이ାର로보틱스와 업무협약

HD현대삼호와 HD현대로보틱스가 인간형 로봇 개발의 선두주자인 독일 노이ାର로보틱스(NEURA Robotics)와 손잡고 조선산업용 용접 자동화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선다.

HD현대삼호는 최근 독일 뮌헨에서 HD현대로보틱스, 노이ାର로보틱스와 함께 '조선산업 인숍(In-shop) 4축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및 실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조선산업용 4축 보행 용접 자동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작업 환경 실증을 통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삼호는 협동로봇, 자동화 장비 등의 운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또 HD현대로보틱스는 다년간 쌓아온 용접 자동화 데이터를 토대로 경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



고 로봇 성능 검증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노이아 로보틱스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4NE-1' 등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조선산업용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및 제품화를 추진한다.

류상훈 HD현대삼호 상무는 "조선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여러 품질 요건에 적합한 용접 자동화 휴머노이드를 개발함으로써 안전하게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영광군수, 공약 이행 직접 챙긴다

### 군수실에 상황판 모니터 설치 민선 8기 50개 공약사업 점검

장세일 영광군수가 군수실에 공약 추진 상황판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 민선 8기 핵심 공약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공약 추진 상황판은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공약별 담당 직원과 직접 소통하며 조례 정비, 관련 정책 검토, 예산 반영 등을 '준비기·실행기·완료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추진해 행정의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수실에 설치된 공약 추진 상황판은 민선 8기 50대 분야 총 50개 공약사업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분야별 공약 분포 현황, 공약 추진 상황 한눈에 보기, 공약 이행 완료 현황, 세부 공약 추진 현황, 읍면 공약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공약별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현재 이행률, 추진 부서, 최근 추진 중인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공약 추진 상황판은 군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상황판을 통해 공약 추진 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반드시 실천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장세일 영광군수와 직원들이 군수실에 설치된 공약 추진 상황판을 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세얼굴

### "탄소 흡수원 확충 등 해상 가치 높이겠다"

박관하 다도해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

"해상생물 증식·복원 등 해상공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최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소장으로 취임한 박관하 소장은 "자연생태계를 보전·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립공원을 만들도록 해양생물 증식·복원을 통한 탄소 흡

수원 확충 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가치를 더욱 높여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관하 소장은 1994년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해 계룡산, 분부 감사기획부, 북한산, 소백산국립공원 등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본사 감사부장을 거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소장으로 부임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